



중국, 뉴실크로드 건설 전략과 시사점

북경지원장 이문형

1. 뉴실크로드 비전과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

□ 추진경위와 배경

-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비전과 액션 플랜(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작성, 발표
 -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회의에서 처음으로 뉴실크로드(一帶一路)에 대한 초보적 구상을 밝힌 지 2년 만에 종합 계획안(비전과 액션플랜)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이래 ‘뉴노멀(新常态)’과 함께 ‘뉴실크로드’는 중국의 최대 정책 화두중 하나로 대두
 - 뉴실크로드는 시진핑 주석의 중귀몽(中國夢)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정책 수단이자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정책으로 AIIB(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핫이슈
- 뉴실크로드 비전과 액션플랜은 전문, 시대적 배경, 공동설립 원칙, 협력정신과 범주, 협력중점, 협력시스템, 지방정부 참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행동, 미래창조 등 8개 부분으로 구성
 - 이하에서는 비전과 액션플랜의 주요 내용을 정리

표 1 뉴실크로드와 AIIB 추진 경위

시기	추진 경과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 보아회의에서 주변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결, 금융협력, 경제통합의 개념을 강조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 카자흐스탄 나자르바 대학강연에서 최초로 육상실크로드 제기
2013년 9월	리커창 총리, 중국-아세안박람회에서 아세안국가들에게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제안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 인도네시아 빌리 APEC 회의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제의
2013년 10월	시진핑주석, 아시아순방중 AIIB 설립 제안
2013년 11월	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정부 국책사업으로 공식 등장
2013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공동으로 일대일로건설좌담회 개최
2014년 5월	시진핑주석, 상해 제4회아시아신포회의에서 ‘아시아안전의 길’ 건설을 제창
2014년 10월	중국,인도 등 아시아 21개국이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초기 자본금을 500억 달러로 설정
2014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8차회의에서 일대일로 추진 계획안을 연구하기로 결정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 북경 APEC 회의에서 일대일로, AIIB,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제창
2014년 12월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설립
2015년 2월	북경에서 ‘일대일로건설공작회의’ 개최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 정부공작보고에서 일대일로 전략 설명
2015년 3월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지도부 구성
2015년 3/31	영국·호주·러시아·브라질등52개국AIIB 참가신청 완료
2015년말	AIIB 공식출범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사업차관 제공 개시

자료: 산업연구원, 각종 언론보도를 재정리

○ 뉴실크로드(一帶一路)는 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 문화다양화, 사회정보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추진을 강조

- 선진국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 뉴실크로드를 통해 경제요소의 자유이동,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시장 융합을 달성하고자함.
-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정책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 원칙으로 높

은 수준, 역내협력기구 적극적 활용, 개방, 포용, 균형, 보편적 혜택을 설정

- 뉴실크로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서로 연결하여 역내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일자리와 유효수요를 창출하며 역내 국가들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
- 뉴실크로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수단이자 중국이 국제사회와 인류 평화발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제안한 것임.

□ 협력의 원칙

① UN 헌장의 원칙과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

- 평화공존 5원칙: 각국의 주권과 영토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평등호혜

② 개방과 협력의 원칙을 견지

- 뉴실크로드 협력 범위를 고대 실크로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각국과 국제조직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

③ 화해와 포용을 견지

- 문명간 차이를 인정하고 각국의 발전방식 모델 선택을 존중

④ 시장원칙을 견지

- 시장규율과 국제통용 규칙을 존중,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결정적 작용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인정

⑤ 상호원윈의 원칙을 견지

- 상호간의 이익과 관심을 존중하고 각국의 우세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시킬 수 있도록 장려

□ 협력 정신과 범주

- 뉴실크로드의 공동발전, 공공번영을 위한 협력의 길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교류를 의미
 - 중국정부는 평화협력, 개방과 포용, 상호학습, 상호원원의 틀 안에서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융합, 문화적 포용을 포함하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강조
- 뉴실크로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면서 한쪽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경제권, 다른 한쪽은 선진국가권인 유럽경제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간지역은 경제적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포함
 - 육상 실크로드의 중점 방향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틱해)에 이르는 길;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 지중해로 가는 길; 중국에서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 가는 길을 포함
 - 해상 실크로드의 중점 방향은 중국 연안 항구에서 동남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 중국 연안 항구에서 남해를 거쳐 남태평양으로 가는 항로를 포함
- 육상 실크로드는 국제대통로에 의존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무역산업단지를 협력 플랫폼으로, 신아시아-유럽 대륙교,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 등 국제경제협력 회랑을 공동으로 건설하자는 것
- 해상 실크로드는 중점항구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운수항로를 공동으로 건설하자는 것
 -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의 두 개의 경제회랑과 뉴실크로드의 건설을 연결시키는 것도 포함

그림 1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 뉴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역내 각국들이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호리호혜, 공동 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

- 역내 인프라 건설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육해공 네트워크를 완성
- 투자무역의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연대와 정치적 신뢰도를 심화시켜나감.
- 인적 교류의 확대와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학습과 공동 번영 달성, 각국 인민들의 상호 이해도 제고와 평화적 우호관계를 형성

□ 협력 중점

- 역내 국가들은 자원부존도가 다르고 경제적 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잠재력과 공간이 크다고 인식
- 정책소통과 인프라 연결,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민심 교류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설정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감.

① 정책소통

- 정책소통을 뉴실크로드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설정
-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다층적인 정부간 거시정책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이익과 정치적 신뢰를 심화시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자함.
- 역내 각국은 경제발전전략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고 공동으로 역내 협력계획과 조치를 강구하며, 협력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지원을 공동으로 추진

② 인프라 연결

- 인프라의 상호 연결은 뉴실크로드 건설의 우선적 영역임.
- 상호 주권과 안전을 존중하다는 전제하에 역내 국가의 인프라건설 계획과 기술표준체계를 접목시키고, 공동으로 국제간선통로를 건설하여 점진적으로 아시아 각 지역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간 인프라 네트워크를 연결
 - ※ 저탄소 녹색 인프라 건설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중 기후변화 영향을 충분히 고려
- 교통인프라의 핵심 통로와 연결점, 중요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도로안전시설과 관리설비를 개선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 전노선에 대한 운송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통관, 환적, 복합 운송시스템을 건설하고 국제운송 규범 구축과 편리화를 도모
 - ※ 접안 인프라 건설과 육상, 수운 연계시스템을 원활히 하고 항구 건설에 대한 합작 건설을 통해 신규 항로 개설과 운행 횟수를 늘리고 해상물류정보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
 - ※ 민간항공에 대한 전면적 협력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 인프라 수준을 제고
-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송유관, 가스관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고 국경간 송전시스템을 건설하여 역내 전력망 개선 사업을 추진

- 역내 광케이블 통신 간선을 건설하여 국가간 통신 연결 수준을 제고시키는 정보 실크로드를 건설
 - ※ 양자간 국제 광케이블 건설과 함께 대륙간 해저 광케이블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위성통신회로 확충을 통해 역내 정보교류의 확대와 협력을 도모

③ 무역원활화

- 무역, 투자 협력은 뉴실크로드 건설의 핵심 내용임.
- 투자와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투자무역 원활화 방안을 연구
- 역내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협력의 잠재력을 적극 발휘시키는 등 협력의 과실을 최대화
- 역내 국가간 정보교류와 상호인증, 통관협력, 검역, 검증, 인허가, 표준, 통계 협력을 통해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의 확산과 실행에 일조
- 국경 통관인프라를 개선하고 국경 통관단일화를 추진하여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통관능력을 향상
- 공급사슬구조의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역내 검증, 검역인증서 교차 인정 등을 추진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도 도입
-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켜 무역자유화 수준을 제고
- 무역영역 확대와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무역균형을 도모
 - ※ 무역방식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가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업업태를 발전시킴.

- ※ 서비스무역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무역의 확대와 현대 서비스 무역 발전을 도모
 - ※ 투자와 무역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투자가 무역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무역원환경화를 촉진시키고 투자장벽을 해소
 - ※ 양자간 투자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 상호간 투자영역을 개방하여 농수산, 농기계, 농산물가공 영역에 대한 심층적 협력을 유도하고, 해양양식, 원양어업, 수산물가공, 담수화, 해양생물제약, 해양공정기술, 환경보호, 해상여행 등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도모
 - ※ 석탄, 가스, 금속광산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력 등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협력을 강화
 - ※ 에너지자원에 대한 현지에서의 산업화를 장려하고 현지에서 에너지산업의 상하류 등 일관 산업 건설시 국제협력의 강화를 유도
 - ※ 에너지자원의 심층적 가공과 장비, 공정서비스 협력을 강화
- 상호비교우위, 상호원원의 원칙하에 신성장동력 산업의 협력을 추진
 - ※ 역내 국가간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심층적 협력을 추진하고 창업투자에서의 협력시스템도 구축
- 부가가치사슬 구조상에서의 분업체계를 개선하고 상하류 산업의 부가가치사슬과 연관 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
 - ※ 연구개발, 생산,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내 산업 부품조달 능력과 종합경쟁력을 제고
 - ※ 역내 국가간 서비스업의 상호개방을 통해 역내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
 - ※ 새로운 투자협력 방식을 개발하고, 국제적 경제무역협력단지, 국경경제협력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와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킴.
 - ※ 생태환경,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녹색 뉴실크로드를 건설

- 각국의 대중국 투자를 환영
 - ※ 중국기업의 역내 국가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산업투자를 장려
 - ※ 뉴실크로드 역내 국가에서 중국 기업들은 현지화 경영 원칙하에 현지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민생개선에 공헌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며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권유함.

④ 자금유통

- 자금유통은 뉴실크로드 건설에 있어 중요한 버팀목임.
- 금융협력 심화를 통해 아시아 화폐 안정시스템, 투융자시스템, 신용시스템을 구축
- 역내 국가간 화폐교환, 결제 범위와 규모를 확대
-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BRICS개발은행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상해협력기구(SCO)내 융자기구 설립을 협의
- 뉴실크로드기금 설립과 운영시스템을 조기에 완성
- 중국-ASEAN간 은행연합체, 상해협력기구 은행연합체간 실무협력을 심화시켜 은행연합체의 여수신 업무에 대한 협력을 강화
- 역내 국가 정부와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장려
- 조건에 부합한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국외에서 위안화와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여 역내 국가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함.
- 양자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역내 높은 수준의 금융감독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역내 금융관리 감독에 대한 협력을 심화

※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금융리스크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내 신용관리부문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

※ 실크로드기금과 역내 정부기금, 상업성 주식투자, 민간자금 등의 실크로드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

⑤ 민심상통(民心相通)

- 민심상통은 뉴실크로드 건설에 있어 사회적 근간임.

- 실크로드의 전통적 협력정신과 우호를 계승하고 문화교류, 학술교류, 인적교류, 매체간 협력, 청년과 부녀간 교류,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자간 협력기반을 조성

- 상호간 유학생 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협력 추진

※ 중국정부는 매년 역내 국가 학생 일만명에게 정부장학금을 지급

※ 역내 국가간 문화의 해, 예술제, 연속극/영화제, 도서전 등을 장려하고 영화, 연속극/영화에 대한 번역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세계문화유산의 공동 신청과 보호 등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감.

- 여행객 규모 확대, 공동 광고, 실크로드 국제 관광지 공동 개발 등 여행업에서의 협력을 심화

※ 역내 국가간 관광비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

※ 해상실크로드에서의 크루즈선 협력 확대

※ 역내 국가의 중요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신청시 서로 협력하는 등 체육교류활동을 강화

- 역내 국가간 전염병에 대한 정보제공, 치료기술 및 인력교류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공공위생 처리 능력 제고에 대한 협력을 강화

※ 의료원조와 응급의료 지원, 산모와 유아 건강, 장애인 회복, 에이즈, 결핵, 학질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한 실무 협력 심화

※ 전통 의학에서의 협력을 확대

- 실험실 공동 설립, 국제기술 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 등 과기협력을 강화

- ※ 과기인력의 교류, 중점 과기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과기혁신능력을 제고
- 역내 국가의 청년취업, 창업훈련, 직업기능개발, 사회보장관리서비스, 공공행정관리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실무 협력을 확대
- 역내 국가의 입법기관간, 주요 정당간 교류를 확대
 - ※ 역내 주요 도시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MOU 체결을 확대
 - ※ 인문교류 확대
 - ※ 역내 싱크탱크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추진
- 교육의료, 빈민구제, 생물다양성, 생태환경, 공익 자선활동 등에서 역내 민간조직간 교류를 확대하고 역내 빈곤지역의 생활조건을 개선
 - ※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 등을 통해 문화매체간 국제교류를 확대시키고 우호적인 문화생태계와 여론 환경을 조성

□ 협력시스템

- 최근 세계경제 융합과 지역간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간 협력체제도 크게 발전하면서 뉴실크로드 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
-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협력을 강화
 - 협력 MOU와 계획을 바탕으로 양자간 협력의 시범 모델을 연구개발
 - 뉴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과 액션 플랜을 담은 양자간 협력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
 - 기존의 양자간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 상해협력기구(SCO), 중국-아세안 10+1, APEC, ASEM,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신평구축회의(CICA), 중국-중동협력포럼, 중국-걸프만회원국전략대화(Gulf Cooperation Council-GCC), 메콩강유역(GMS)경제협력,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 등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들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가들이 뉴실크로드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

- 역내의 지역간 경제협력 포럼, 보아오포럼, 중국-아세안박람회, 중국-아시아-유럽박람회, 아시아-유럽경제포럼, 중국국제투자무역간담회, 중국-남아시아박람회, 중국-아랍박람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중국-러시아박람회, 첸하이(前海)협력포럼 등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
- ※ 역내 국가의 지방과 민간들이 추진하는 문화유산 유산 발굴과 투자무역, 문화교류활동, 돈황실크로드국제문화박람회, 실크로드국제영화제, 도서전 등을 적극 지지
- ※ 뉴실크로드 국제 고위급 포럼 설립을 제안

□ 중국 각 지방의 뉴실크로드 건설시 역할과 주요 조치

- 뉴실크로드 건설에 있어 국내 각 지역의 비교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방전략을 유도
 - 동부, 중부, 서부의 유기적 협력 하에 전국적으로 개방수준을 제고
- 서북과 동북지구
 - 신장(新疆)지역의 지정학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쪽을 향한 창구 역할 부여
 -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에서의 중요한 교통 중추 역할, 무역과 물류, 문화교류의 핵심 역할을 부여
 - 산시(陝西)와 간수(甘肅)의 경제문화와 닝샤(寧夏), 칭하이(青海)의 민족문화 비교우위를 발휘시키고, 시안(西安)의 내륙형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킴.
 - ※ 란조우(蘭州), 시닝(西寧)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닝샤(寧夏) 내륙개방형 경제시험구 건설을 추진하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지향한 통로, 물류, 산업, 인문교류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부여
 - ※ 소련과 국경을 접한 내몽고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헤이룽장(黑龍江)의 대러시아 철도 연계 및 역내 철도망을 개선

- ※ 헤이룽장, 지린(吉林), 랴오닝(辽宁)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육해운수 협력을 강화
- ※ 베이징-모스크바간 아시아-유럽고속철도를 건설

○ 서남지구

- 광시(广西)의 대아세안 지정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베이부완(北部湾)경제구와 주강(珠江)-시강(西江)의 경제벨트 발전을 도모하고 아세안과의 국제통로를 구축
- ※ 서남, 중남지역의 개방을 통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와 육상실크로드(一帶)간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
- 윈난(云南)과 주변 국가간의 국제운송루트를 건설하고 메콩강유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
- ※ 남아시아와 동남아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
- ※ 시장(西藏; 티벳)과 네팔간의 국경무역과 여행문화 협력을 추진

○ 동부 연안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해협양안, 환발해만 등 경제구들의 개방도를 제고시키고, 경제실력을 향상시켜 경제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 부여
- 선전 첸하이(深圳前海), 광저우 난사(广州南沙), 주하이 형친(珠海横琴), 푸젠 핑탄(福建平潭) 개발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광동-마카오-홍콩경제권을 형성
- 저장(浙江)해양경제발전시험구, 푸젠해협그린경제시험구, 조우산(舟山)군도신구 건설을 추진하고, 대하이난(海南)레저섬 개발과 개방도를 제고
- 상하이, 텐진, 닝버-조우산, 광저우, 선전, 전강(湛江), 산토우(汕头), 칭다오, 엔타이, 푸조우, 샤먼, 취엔조우(泉州), 하이코우(海口), 산야(三亚) 등 연안지역의 항구건설을 강화

※ 상하이와 광저우 비행장의 국제 중추기능을 강화

- 개방 확대와 심층적 개혁을 통해 혁신형 개방경제체제를 확립하고, 과학 기술혁신능력을 제고시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뉴실크로드,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해외 화교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비교우위를 발휘시켜 뉴실크로드의 건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

- 대만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뉴실크로드 참여와 역할을 적절히 안배

○ 내륙지역

- 내륙지역의 지리적 위치, 풍부한 인력자원, 산업기초 우위를 활용

※ 장강중류지역 도시권, 청위(스촨과 충칭, 成渝) 도시권, 중원도시권, 내몽고 도시권(呼包鄂榆), 동북3성 도시권(哈长)에 의지해 역내 협력과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

※ 충칭의 서부개발계획에서의 중심적 역할 부여와 함께 청두, 정조우, 우한, 창사, 난창(南昌), 허페이(合肥) 등지의 내륙 개방형 경제구 기능을 강화

- 장강 중상류지역과 러시아 발트해 연안간의 협력을 강화

※ 중국-유럽 연계 철도와 운수, 통관협조체제를 건립, 중국-유럽열차행을 통해 운송루트를 개발하고 동 열차를 브랜드로 격상

- 정조우, 시안 등 내륙도시의 국제공항, 국제내륙항 건설을 통해 내륙항과 연안항구간, 국경간 통관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시범구 역할을 지지

※ 세관특수감독관리구 배치를 개선하여 가공무역 활성화와 역내 국가간의 산업협력 활성화를 유도

□ 중국의 적극적 행동

- 지난 1년간 중국정부는 뉴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소통과 실

무협력을 강화해나고 있으며, 일련의 정책조치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지도부가 적극 추동

-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국가 지도층이 20여개 국가를 방문하여 정상회담,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뉴실크로드 건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 협정 체결

- 일부 국가들과 뉴실크로드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국경 인접 국가들과 변경협력에 대한 MOU와 중장기 경제무역협력계획 등을 체결
※ 일부 인접 국가들과는 지역협력계획을 연구 중에 있음.

○ 프로젝트 추진

- 역내 국가들과 인프라 연결, 산업투자, 자원개발, 경제무역협력, 금융협력, 인문교류, 생태보호, 해상협력 등에 대해 소통과 협상을 진행
※ 일부 프로젝트는 가시화 단계에 진입

○ 정책 수립과 집행

- 중국정부는 국내 각종 자원을 통합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국-유럽-아시아 경제협력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 중에 있음.
- 은행카드 청산기구 설립 등과 같이 국제 청산과 결제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
- 무역투자 원활화와 역내 운송일체화 관련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음.

○ 플랫폼 기능의 활성화

- 각 지역에서 뉴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국제 고위급회담,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고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

□ 희망찬 미래를 공동으로 창출

- 뉴실크로드 건설은 중국이 제안하였지만 중국과 역내 국가들의 공동 희망 사항이기도 함.

- 중국은 뉴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계기로 평등협상, 각국의 이익 고려, 각국의 요구 반영 등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높은 수준, 보다 심층적인 大개방, 大교류, 大융합을 역내 국가들과 함께 이루고자 함.

- 뉴실크로드 건설은 개방적,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세계 각국과 국제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

- 뉴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시 목표를 협의하고, 정책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고도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갖고 다원적인, 개방적인 협력 과정을 중시

- 지속적으로 뉴실크로드의 협력 내용과 방식을 보완하고 공동으로 시간표, 노선도를 작성

- 역내 국가들의 발전계획과 지역간 협력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

-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 함께 기존의 지역협력체의 틀 안에서 공동연구와 포럼과 전시회, 인력 양성, 교류방문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뉴실크로드의 목표, 내용, 임무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 함께 시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상호원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추진

- 쌍방이 인정하고 조건이 성숙된 프로젝트를 먼저 추진하여 가급적 조기

에 과실을 향유

○ 뉴실크로드는 상호존중의 길, 상호원원의 길, 문명을 서로 배우는 길임.

-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 합심을 통해 곤란을 극복하고, 함께 전진하고, 뉴실크로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바라며, 역내 국가들과 뉴실크로드의 열매를 공유하고자함.

2. 평가와 시사점

□ 뉴실크로드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중국의 야심찬 대외전략 실현 수단

○ 뉴실크로드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인구 44억명, 경제규모 21조 달러로 세계 인구의 63%와 세계 GDP의 2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

○ 뉴실크로드는 시진핑정부가 제창하는 중궈몽(中國夢)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목적, 장기적인 전략임.

- 중국정부는 뉴실크로드 건설에 30~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주변국들, 특히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

-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대응하고 러시아, 인도 등 잠재적 경쟁국과의 외교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함.

- 역내 국가,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항구, 비행장, 철도, 도로, 물류기지 건설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함.

※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철강, 설비산업의 수출도 적극 추진

※ 선진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수출 위축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을 통해 보완하고자함.

- 중동과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 가스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여 국가안보에 일조하고자함.

- 위안화의 국제화 수단으로 뉴실크로드 전략을 적극 활용

※ 위안화의 국제결제 기능 강화는 물론 보유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크게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것

※ AIIB의 결제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포함시킬 생각

○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의 가속화,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뉴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개혁개방정책과 국제화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

-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접목을 통해 중서부와 동부의 경제일체화를 도모하고, 특히 중서부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

※ 뉴실크로드 건설로 중국의 산업인프라는 물론 각 지역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유도해 수출통로를 확대하고 국내 공급과잉 현상도 해소

※ 과다한 외환보유고의 해소에도 도움

- 중국 민생증권은 향후 뉴실크로드 사업에 약 1조 4,000억 위안(약 183조 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 자금원: AIIB와 실크로드기금을 설립

○ 실크로드의 자금원과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亞洲基礎設施投資者銀行)을 설립

-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2014년 10월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1개 국가가 베이징에 모여 설립 MOU를 체결
- 2015년 4월 15일 현재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내 정식 출범할 예정
 - ※ 2015년 3월 27일 한국도 창립회원국으로 신청서를 제출
 - ※ 아시아 34개국, 유럽 18개국, 대양주 2개국, 남미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등 총 57개국
- 총자본금 한도로 1,000억 달러를 설정하고 그중 중국이 500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 나머지 출자금은 각국의 GDP 비중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
- AIIB는 역내 교통, 에너지, 통신, 농업, 도시발전 프로젝트에 대출, 주식투자 형태 등으로 자금을 지원
 - ※ 은행 설립전이지만 최초 프로젝트로 베이징-바그다드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이미 선정
- 2014년 12월, “시장화, 국제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뉴실크로드(一帶一路) 통과 지역의 기초시설, 자원개발, 산업협력, 금융협력에 용자를 제공하기 위한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
- 초기 기금으로 400억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중장기 주식 투자 위주로 기금을 구성, 세계은행의 국제금융회사(IF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대출 기한이 15년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일반 PE 보다 대출 기간을 길게 설정

□ 2015년 4월 6일, 뉴실크로드 국책사업의 지휘체계 구성

-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조장에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상무위원 겸 부총리, 부조장에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양징(楊晶) 국무위원,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등 1명의 조장과 4명의 부조장으로 구성

- 장가오리 부총리는 수석부총리로 경제를 총괄
 - 왕후닝 주임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대에 걸친 책사로 중국 최고의 외교전략전문가이자 정치국원, 중앙개혁판공실 주임
 - 왕양 부총리는 국무원에서 경제무역, 농업, 대외원조 등을 담당
 - 양징 국무위원은 중앙 각 부처와 지방정부간 정책 조율을 담당
 - 양제츠 국무위원은 외교를 담당
- 건설영도소조의 지도부 구성을 볼 때 향후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외교, 경제,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

- 중국정부의 뉴실크로드 건설은 외교적, 경제적 효과와 파장이 큰 사업으로 향후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중심의 뉴실크로드 건설은 외교적으로 미국, 러시아, 인도와의 파워 게임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중국과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과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특히 최근 소요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장의 적극적 개방은 인접한 회교권 국가들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에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국내에서도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성장 거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뉴실크로드 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국 서부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뉴실크로드 전략 추진과 관련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이에 부속되는

프로젝트가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

-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7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공항, 항구, 철도, 도로, 통신,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철강, 석유화학, 기계설비, 건설장비, IT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 물류, 문화교류, 레저 등 지식서비스산업에도 상당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뉴실크로드 프로젝트와 AIIB, 뉴실크로드기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호기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